



생명의 땅 황금빛 가을 18일 영암군 삼호읍 전남도농업박람회 인근 농업테마공원 내 논에 유색미를 심어 만든 '생명의 땅 전향'이라는 글귀가 누렇게 익은 벼들과 어우러져 있다. 농업박람회는 오는 24일 벼를 수확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 내년 예산 심의 돌입... 박근혜 대통령 광주·전남 대선 공약사업 살펴보니

## 14대 공약 25개 사업 줄줄이 표류 예산 일부라도 편성 첫 단추 꿰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세해 예산안 심사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2013년 출범 후 집권 3년차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대선공약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광주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7대 공약 14개 세부사업을, 전남에는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사업 등 7대 공약 11개 사업을 약속했다.

하지만,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비롯한 전남의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SOC) 사업의 추진 속도는 더디고 일부 사업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 아예 제외돼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일부 공약 사업의 경우 편성해 공약사업의 첫 단추라도 꿰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기 내에 추진되기 어려워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은 단 한 차례도 국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광주~순천)도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9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전남도의 대선 공약은 7대 공약에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6257억원 중 지난해까지 2197억원이 투입됐다.

전남도는 내년 공약사업에 7856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고작 167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3년간 전체 공약사업에 쓴 예산의 5.84%에 불과한 셈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 광주~원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은 그나마 '찜찜' 예산이라도 받고 있으나 나머지 공약사업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마저 제외됐다.

광주교도소 철통 이송작전 ▶ 6면

그림편자-문명호의 베트남 ▶ 18면

U-17 월드컵 브라질 격파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금호산업 인수 연말까지 마무리... 제2의 창업”

박삼구 회장 단독 인터뷰  
“금호타이어 2017년까지 인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올 연말까지 금호산업 인수 마무리로 제2창업에 이르고 책임 경영을 통해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14면>

박 회장은 지난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금호산업 인수 종결에 이어 오는 2017년까지는 금호타이어 인

수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 박 회장은 “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후 “(인수문제는)채권단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빠르면 (시점은)내년 말쯤이 될 것 같다. 인수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아직 시간

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월 24일 금호산업 채권단과 7228억 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대금을 납입해 경영을 완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7년까지 금호타이어 인수가 성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대 주축인 운수(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를 비롯한 건설(금호산업), 타이어산업(금호타이어)으로 그룹 재건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수석논설위원  
unipark@kwangju.co.kr

## 장영실 미스터리... 영화 ‘한복 입은 남자’ 광주서 찍는다

루벤스 그림 속 주인공 ‘팩션’ 이상훈 감독·현진영화사  
패밀리랜드에 대규모 세트장 내년 하반기 크랭크인 예정



루벤스 작 ‘한복 입은 남자’

조선 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실종 미스터리를 추적한 영화 ‘한복 입은 남자’가 광주에서 제작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관련기사 2면>

‘한복 입은 남자’는 서양인이 한국인을 그린 최초의 그림으로 유명한 루벤스의 대표작 ‘한복 입은 남자’(A Man in Korean Costume·1617)의 주인공이 장영실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지난해 출간된 이상훈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제작사인 (주)현진영화사(대표 이순열)는 18일 우치공원 내 패밀리랜드에 작품의 주 배경이 될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를 재현한 ‘한복 입은 남자’ 오픈 세트장을 건립하고 내년 하반기 크랭크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세트는 패밀리랜드 정문 인근 2만500여㎡에 조성되고, 실내세트는 1500여㎡의 아쿠아리움을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인접한 대아저수지에는 대형 범선과 유럽풍의 선착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트장은 영상제작이 이뤄지는 공간

과 촬영 뒤 어린이 체험 학습과 관광을 위한 공간 등으로 꾸며지는 등 우치공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작사는 최근 대아저수지 관광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함께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4일 운영현 광주시장을 방문, 세트장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팩션’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장영실이 중국 정화대장의 함대를 타고 로마를 거쳐 이탈리아 피렌체로 건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 되고, 그림 모델이 된다는 내용으로 그려진다. 해시계, 신기전 등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장영실은 노비 출신에서 세종의 총애를 받고 종3품까지 올랐지만 세종의 가마를 잘못 설계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후 역사 속에서 완벽히 사라진 인물이다.

제작사 측은 ‘한복 입은 남자’를 한국, 중국, 이탈리아 3국 합작에 제작비 200억원 규모의 작품으로 만들 계획이며 소설의 원작자인 이상훈씨가 메가폰을 잡는다. /김미은기자 kemik@kwangju.co.kr

## 광주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소음기준 80웨클 적용’ 건의

광주시는 18일 “광주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인정을 위해 농촌지역과 같은 80웨클(WECPNL)로 설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 기준인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실제 보상 대상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 공항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2017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3일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국방부·군·광

주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국방부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수정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에 수정된 이전 건의서를 평가받을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실제 주민 피해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필기자 cki@

###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 여행

####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기택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 자유일정

3일차 |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드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